



## 부석사와 무량수전



정재훈

〈 문화재발굴조사사업단장  
전 문화재관리국장 〉

**부**석사(浮石寺)는 영주 봉황산 중턱 명당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태백산과 소백산의 두 줄기 산맥이 갈리는 깊은 계곡으로 수려한 산세와 맑은 산내가 흐르는 경승지이다. 부석사는 676년 2월 문무

왕의 명에 의해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사상의 발원지이다.

의상은 중국에 유학하여 8년간 화엄사상을 공부하고 48세에 돌아와 신라에 화엄종을 연 조사(祖師)이다. 그는 산천을 두루 답사하여 고구려



의 먼지와 백제의 바람이 미치지 아니하고 말이나 소가 접근하지 못하는 신령스러운 땅을 찾아 부석사를 창건했던 것이다.

해인사, 화엄사, 감사, 보원사, 범어사, 옥천사, 불국사 등은 신라의 화엄종 사찰인데 이들 사찰의 종찰(宗刹)이 부석사이다. 원래 화엄종 사찰에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데, 부석사는 화엄종 종찰이면서도 아미



타불을 주불로 모신 정토사상의 세계가 열려 있는 것도 특이하다.

부석사에는 한국 미술사 최고의 미술품들이 모여 있다. 고려시대 건물인 무량수전이나 최대의 소조여래 좌상, 고려벽화, 통일신라 석등, 조화로운 석축단 등은 우리 나라 문화유산 속에서 정수가 되는 것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의상을 사랑하다가 바닷속에 몸을 던진 선묘의 영정을 모신 선묘각(善妙閣)이 있어 이채롭다.

어찌하여 신라 화엄종찰인 부석사에 선묘라는 여인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 자리하게 된 것인가? 선묘에 대한 기록은 988년에 기록된 북송(北宋)의 「송고승전(宋高僧傳)」속 의상천(義湘傳)에 수록되어 있다. 의상은 669년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중국 등주(登州) 해안에 도착하여 한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선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선묘는 의상의 용모



가 매우 뛰어난을 보고 연모하게 되었지만 승려인 의상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선묘는 불가에 귀의하여 일생 동안 스님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바치는 시주(施主)가 되겠다고 발원하였다. 그후 의상은 중국 장안(長安) 종남산에서 8년간 지엄(至嚴)에게 화엄학을 배우고,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 옛날에 신세를 졌던 그 신도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배를 탔다. 이때 선묘는 미리 준비한 법복(法服)등을 함

에 넣어 의상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의상이 탄 배는 멀리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며 “나의 본심은 법사(法師)를 공양하는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이 옷함이 저 배에 닿기를 빕니다.”하며 옷이 든 함을 바닷속에 던졌다. 때마침 질풍이 불어 그 함이 의상이 탄 배에 닿게 되었다. 그녀는 또 발원하기를 “내 몸이 변하여 큰 용이 되어 저 배가 무사히 신라 땅에 닿아 스님이 법(法)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하면서 몸을 바닷속에 던졌다.

이 선묘의 원력에 신(神)이 감동하여 과연 용(龍)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의상이 탄 배를 보호하여, 배는 무사히 신라에 도달하게 되었다.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하고자 할 때 이곳에는 다른 종파 승려 500여명이 모여 의상이 화엄사상을 펴는 데 반대했다. 이때 선묘의 훈령이 떠다니는 큰 반석이 되어 반대파를 모두 몰



아내었다. 그래서 ‘뜯 돌의 절’이라 하여 부석사(浮石寺)라 이름하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기록은 선묘의 사랑을 신기한 내용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의상을 열렬히 사랑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한 여인의 애절한 원혼이 깔려 있다. 그리하여 화엄사상의 발원지인 부석사에 선묘의 원당(願堂)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 아름답기 그지없는 무량수전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은 한국 건축사에 있어 최고(最古)의 건물이다. 1916년 보수시 먹글씨가 발견되었는데, 1376년 재건된 고려중기 건물이다. 전면 5칸, 측면 3칸, 주심포의 팔작지붕이다. 기둥은 배흘림을 하고 간결한 주심포의 포작과 알맞게 든 추녀선, 귀솟음의 수법. 섬세한 창살, 시원스러운 포벽 등 아름답기 그지 없다.

무량수전 속에 모셔진 소조(塑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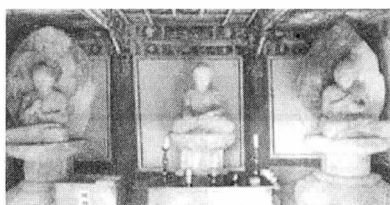


여래좌상(국보 제45호)은 한국의 소조불상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아름다운 불상이다. 법의는 우견편단을 하고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을 취했으며, 풍만한 얼굴에 바로 뜬 눈과 목에 삼도(三道)가 있는 엄숙한 표정이다. 목조광배가 붙어 있는데 외곽에는 화염문이 조각되었고, 내곽에는 보상화문이 조각되었다.

조사당(祖師堂 : 국보 제 19호)은 의상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으며 1377

년 건립된 고려의 맛배집이다. 전면 3칸, 측면 1칸의 주심포 집으로 소박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이 있다. 의상의 지팡이에서 잎이 났다는 비선화수(飛仙花樹)라는 상록수의 식물이 축단에 나 있다.

이 조사당 벽에는 사천왕상과 보살상 등의 고려 벽화가 장식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따로 떼어내어 무량수전 내에 보존하고 있다. 이 벽화는 1377년 조사당 창건 당시의 것으로



한국 최고의 건물 벽화이다.

무량수전 앞에 있는 석등(국보 제 17호)은 전형적인 통일신라 8각석등으로 화사석(火舍石)에는 4면에 창, 4면에 보살상이 조각되어 경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3층석탑, 석조삼존여래좌상(石造三尊如來坐像 : 보물 제220호) 등이 있고 무량수전 내에 깔았던

녹유전도 귀중한 문화재 자료이다. 사명대사의 중창기가 걸려 있는 안양루(安養樓)는 조선시대 문루건물의 장중하고 시원한 멋을 보여준다.

부석사는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된 가장 아름다운 신라 석축 기법을 볼 수 있고 산자락에 흠뻑 젖어 있는 고승들의 석비와 석조, 건물들이 잘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처럼 정일한 산사의 교묘한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